

부천 원미구노인복지관 급식봉사 소림사 보살들

“늘 하는 일인데 봉사라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라니 쪽스럽네요. 더 힘들게 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 하는 부천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관 장 정관) 식당의 7월 28일, 급식봉사를 위해 나온 1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다. 부천 소림사(주지 지혜) 신도들이다. 이날은 50명이 넘는 봉사팀 중 ‘열렬’ 봉사자들로 뭉친 4조가 출동했다.

1년 5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4조 반장 임명자(47) 보살은 “우리 일은 그저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며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소림사 신도들이야말로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표본이라며 복지관 윤성은(43) 조리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이들의 활동은 대단하다.

정기적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 350여명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관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굶은일을 마다 않는 것도 복지관 입장에서는 무척 고마운 일이다.



부천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년 5개월째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소림사 보살들이 7월 28일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드느라 정성을 쏟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맞춤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과 후원자간의 일대일 결연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림사 보살들은 “결연사업

다. 임보살이 “우리 팀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어 반장으로써 너무 뿌듯하다”고 밝힐 정도다.

또 하나 임보살이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봉사자들끼리의 친밀도다. 가장 나이가 많은 양정숙(72)·이말순(68) 보살이 앞에서 끌면서 봉사자들의 귀감이 된다면 다른 봉사자들은 ‘어르신 보살’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우직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림사 팀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꽃마을에서 부천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 2002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보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보니 어느 순간,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할 뿐이라는 것이다.

“봉사를 하니 무엇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든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즐겁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봉사인 것 같아요.” 김강진 기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래프팅·동굴체험 정말 신나요”

삼전복지관 장애·결식아동 20명 함께 어울려 체험캠프



7월 21일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고 있는 삼전복지관 장애아동들과 결식아동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래프팅을 넘어서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7월 21일 강원도 영월 동강.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래프팅을 즐기 위해 찾은 사람들의 함성이 동강을 뜨겁게 달군다.

즐거움 함성 속에는 서울 삼전복지관(관장 선재) 장애주간보호 아동과 ‘푸른교실’ 결식아동 20명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 이 중 삼전복지관의 토틸이 재우(10)는 “너무 긴장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처음 래프팅에 참여하는 설렘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동들은 한명 두 명, 구멍 자켓을 입고 헬멧을 쓰는 자신들의

모습에 마냥 신이 난다.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결식아동들은 몰라도 자제를 알고 있는 장애아동들도 래프팅이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장애아동들도 지도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하고, 물살이 급하지 않은 곳을 택해 즐기며 충분히 가능하다.

“배를 짓는 노 같은 것이 패들이야. 자루 끝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루를 잘 잡아야 해.” 래프팅에 들어가기 앞선 사전 교육 시

간, 실습 강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이리저리 따라 해본다. 자폐아동들은 교육교사와 ‘푸른교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드디어 무더운 공기 속에서 강물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하는 아이들. 절로 웃음이 피어나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게 된다. 물에 빠지고 헤엄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하루였다.

이튿날 동굴탐험. 임진왜란때 고씨들이 숨어살았다는 ‘고씨동굴’ 안은 금방 ‘달살’이 돌을 정도로 시원하다. 더위를 많이 타는 장애아동 현성이(14)는 동굴의 시원함에 반했는지 칭얼대지도 않고 잘 견뎌냈다. 아이들에게 동굴 속 석주와 온갖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들은 처음 보는 것인이라 신기하고 아름답다. ‘푸른교실’ 아동 승민이(12)는 “장애친구들과는 조금 서먹했는데 같이 래프팅도 하고 동굴 탐험도 하니 돌아가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선이(11)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 체험 캠프에 동행, 일정을 함께한 관장 선재 스님은 “자폐아동과 결식아동들 모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그들의 세계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캠프로 아이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영월=김강진 기자

밝은 웃음 찾아주세요

루프스 앓고 있는 광지혜씨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더 많은 걸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범갑)가 ‘8월 환우’로 선정한 광지혜(32)씨.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병에 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지혜씨는 92년 경희의료원에서 자가면역질환인 루프스(전신성 홍반성낭창)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다. 그러나 99년 4



월, 합병증인 만성신부전으로까지 병이 진행되고 말았다. 현재는 양방·협관에 인조 성형혈관술을 받아 일주일에 3회씩 혈액을 투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재활의지를 갖고 있는 지혜씨지만 집안 환경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아버지는 발병 초기에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왔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신라면달, 식당일 등을 하다 2003년에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

면역억제제,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혜씨. 어머니와 자신의 병원비로 인해 생긴 빚에 허덕이다보니 사는 것이 언제나 힘들다.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삶의 힘을 잃지 않는 지혜씨에게는 불자들이 보내주는 작은 힘이 허투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줍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줍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현정.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 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보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각장애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을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보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박상환 50,000원 지명숙 60,000원 오승희 10,000원 총 누적성금 41,744,050원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완전 석권한 - 리빙에어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 애원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 유해냄새 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서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산업공예 연구원(시험성적표) ◆ 고려대학교연구소 측정확인서
 ◆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 미국환경청 인증서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환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기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절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아금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예코메트 과정을 추진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